

한국학의 정보화 · 세계화 산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이 보편화되면서 국가간 정보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문화 정보는 하나의 국가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학정보센터를 찾아가 봤다. <글/ 박민식 기자>

한 국학정보센터는 청계산의 좋은 경치와 정보센터 가족들의 좋은 인상 때문이지 처음 방문임에도 친근감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센터의 운영실무를 담당하고있는 김병선 전산실장(국어정보학 교수)을 통해 정보센터의 활동, 비전 등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자세히 소개받을 수 있었다.

김병선 전산실장은 “한국학정보센터는 한국학 기초자료 수집, 한국학 자료의 전산정보화 및 DB개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등 한국학자료를 전산화하여 국내외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부설기구”라고 소개했다.

현재 한국학정보센터는 전산정보실, 백과사전편찬실, 편수출판실, 운영과 등 3실 1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어학, 한문학, 문헌정보학 등을 전공한 20여명의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학 DB개발의 실무책임조직인 정보전산실은 한국학자에대한 정보화마인드 확산교육, 한국학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개발, 전산망 관리·운영, 한

국학정보의 온라인오프라인 봉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 한국학' 개발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한국학에 대한 자부심 충만

한국학정보센터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디지털 한국학([Http://uniweb.unitel.co.kr:8085](http://uniweb.unitel.co.kr:8085))에 대한 센터 연구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였다. 김실장은 “디지털 한국학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문화와 한국학 디지털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한국학정보센터와 삼성SDS가 공동으로 개발한 인터넷상의 한국학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했다.

디지털 한국학은 지난해 3월 개발에 착수하여 6월부터 삼성SDS의 유니텔망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한국문화와 한국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화사랑방, 한국문화강좌, 한국의 역대인물, 조선조 방목, 삼국사기, 한국학 연구동향 등이다.

문화사랑방은 겨레의 얼과 슬기로 빛어낸 한국문화를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민 우리 문화의 컴퓨터 한국의 옛가구, 가볼 수 없는 북한지역 문화재 그리고 기념일 등이 다양한 화상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한국문화강좌는 학계의 권위있는 교수와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며, 한국과 한국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준다. 고사성이 강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형조 교수가 맡고 있으며, 명심보감 강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유완빈 교수가 맡고 있다. 의문점은 Q&A를 통해 질문할 수 있



▲ 김병선 실장은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한국적 정보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DB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학정보센터 직원들의 모습 (왼쪽에서 세번째가 김병선 실장)

